

전주시 - 법무부 '우리동네 법률홈닥터' 운영

소외계층 고충 해소 '단비'

지역거점기관 상주 무료로 법률서비스 제공

전주시와 법무부가 함께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제도가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고 있다.

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동별 순회상담을 통해 법률상담과 법률교육, 문서작성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우리동네 법률홈닥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 및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 정아람 변호사는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보좌협의체 실무분과인 통합사례회의 '희망보드미' 회의에 참석, 전주 지역 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에도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법

률서비스를 통합 연계·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4년째 배치 운영중인 법률홈닥터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삶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어느덧 이웃이 소외된 이웃을 찾아 돌보는 전주형 동네복지 사업의 한 축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료법률 상담을 원하는 전주 시민은 누구나 법률홈닥터 사무실(063-281-0309) 또는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503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설 연휴 인파로 가득 찬 한옥마을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전주시 전주한옥마을에 연휴의 끝을 즐기러 모여든 시민과 관광객들로 한옥마을 일대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경찰쌤 이거 아세요?"... 전북청 청소년 비행차단 사례 발표

고교생 음주 조사 착수

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청소년 비행차단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오후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근무하는 송 순경은 한 학생에게서 "경찰쌤 이거 아세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요"라는 글과 함께 옛돼 보이는 남자 아이들이 음주하고 있는 모습의 SNS 게시물을 캡처 사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 순경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음주사진을 올린 학생의 계정은 부계정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몇 명의 지인에게만 친구

관계를 설정한 계정이었다.

또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술 마시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고 신분증 검사를 잘 하지 않는 술집 정보까지 공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송 순경은 수사문 끝에 사진 속 아이들 중 한명인 A군을 찾아냈다.

당시 A군은 비행사실을 부인했으나 본인이 올린 술 마시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사실을 인정했다.

다음날 송 순경은 A군과 계사된 사진 속 학생 7명을 만나 먼저 은밀한 생활을 공유하던 페이스북 부계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송 순경은 학생들이 "그간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전화해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알리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했다.

송 순경은 "청소년의 비행은 어른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며 "누구나 비행청소년이 될 수 있지만 가족, 학교, 가게사장, 자신 같은 경찰관 등 주변 누구라도 이 친구들에게 조그만 관심과 애정을 가져준다면 그 일탈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혹시 앞으로도 SNS에서 이런 게시물을 보시면 캡처해서 바로 저 같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게 저희들 일이니깐요"라고 부탁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대형차량 줄음운전 안전장치 지원 확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등

전주시가 화물·특수차 등 사업용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착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4축 이상 자동차, 특수 용도형 화물 자동차, 구난형 및 특수 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의거,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길이 9m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 차량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 대형 차량에는 1대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경고장치를 장착하는 비용이 50만원 미만의 경우 전체 비용의 80%, 50만원 초과 시에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뒤 보조금 청구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면 지원받게 된다.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첨단안전장치로 성능·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제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와 전화(1577-0990)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신청율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으로 안전한 도로 교통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임실 한 도로서 중앙선 침범 차량에 추돌사고... 화재 발생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경 임실군 지사면 한 도로에서 차량 두대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불이 붙은 그랜저 차량 운전자 A모씨(48)와 K5운전자 B모씨(28)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그랜저 동승자 C모씨(48)등 2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왕복 2차로에서 마주 오던 두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고 그랜저 차량에만 불이 붙었다. 경찰은 그랜저 차량 동승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원이 최근 병원지하 1층 모악홀에서 보직자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1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병원 발전 위해 최선을"

전북대병원 개원 110주년 기념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지난 1일 병원지하 1층 모악홀에서 보직자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1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병원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의료진과 직원에 대한 우수·모범직원 표창(27명)을 비롯, 30년 이상 장기근속 표창(138명), 협력업체 우수직원 표창(2명), 모범 자원봉사자 표창(1명) 등의 168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개원 11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한 세기가 넘도록 지역 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의학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병원 직원의 헌신

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병원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병원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또한, 조 원장은 "우리 병원이 그동안 축적해온 자산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병원의 미래를 위한 진료, 연구, 교육의 3대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성의껏 고객을 응대해 진정한 환자중심의 병원, 지역민과 함께 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돈도 못 벌면서" 격분

군산서 아내 살해한 50대 경찰 조사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끝내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6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모씨(54)를 불집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경 군산시 나운동 자택에서 아내 B모씨(45)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흉기를 들고 체포에 불응하자 테이저건을 사용해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가 '돈도 못 벌어서 주면서 무슨 말이 많냐'며 자신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석훈 기자

고창서 80대 노부부 숨진 채 발견

경찰 "남편이 살해한 듯"

고창의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경 고창군 한 아파트에서 A모씨(85)와 아내 B모씨(80)가 쓰러져 숨진 것을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관리인은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된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문을 열어 확인해 보니 시신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A씨와 B씨는 흉기에

수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으며 아내의 몸에 흉기를 막을 때 나타나는 상처인 '방아흔'이 있는 점으로 미뤄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한 여러 정황상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주민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기자

과잉재배 어려움 겪는 아로니아 농가 구조조정

전주시, 과잉정비 사업 추진

전주시가 과잉재배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로니아 재배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국내 아로니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가격 하락에 따른 안정적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전주지역 아로니아 재배농가가 시설을 철거할 경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아로니아 과잉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과잉정비에 지원되는 비용은 1ha당 600만원으로 아로니아를 실제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 시설철거와 정지작업 등을 완료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50%와 지방비 50%로 전액 지원한다. /송효철 기자

신청대상은 아로니아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농업인으로 올해 1월 18일 현재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있는 실경작자이다.

전주시지역에서는 총 10여 농가에서 약 5ha정도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 △아로니아 생과 판매나 가공목적이 아닌 묘목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재배된 경우 △FTA기금으로 폐업 지원 보상을 받은 과수원 △결실이 되지 않는 논과 밭, 임야 등에 산재된 과수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과잉정비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농지임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1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신청접수

전주시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노후경유차량과 1톤 이상 화물차 등을 조기폐차하고 대체차량구매시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올 상반기 국비 4억2000만원 등 총 8억40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등 약 500여대를 폐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등급제 5등급 경유자동차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로용 3중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등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연수 전주시에 등록이 돼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단, 정부의 지원(일부지원 포함)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기준가액 표에 따라 결정되며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급된다. 3.5톤 이하 차량의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165만원이다.

특히, 3.5톤 이상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올해 1월 이후 출고된 Euro6 기준(질소산화물 배출량 0.4g/kWh 이하) 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에는 폐차 당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대상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대체 구입할 경우에는 400만원씩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사회적 공헌·약자 20% 우선지원대상(배출가스5등급 경유차 중 비상저감장치로 인한 과태료 유예 처분 차량,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저공해 보조차량 유예 차량) 30%인 50%로 배정물량을 설정해 각 분야별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도시농업 전문가과정 교육생 모집

전주시가 도시농업 전문가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는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와 전주지역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교육은 오는 3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인원은 총 30명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도시농업의 이해 및 도시농업 전문가의 역할 △농업기분교육 △도시텃밭 조성실습 △치유농업의 이해 △텃밭프로그램 운영 등 이론과 실습 포함 총 80시간 교육으로 운영된다. /송효철 기자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접수

전주시는 쌀 생산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2019년 쌀소득·밭농업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다. 단, 지난해 논농업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1ha당 10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농지의 적용 단기는 오는 4월 30일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